

박세당 詩에 나타난 ‘눈물’의 의미

최 유 미*

차 례

1. 서론	3. 박세당 詩에 나타난 ‘눈물’의 의미
2. 박세당 詩에 나타나는 ‘눈물’의 양상	1) 해소를 통한 감정의 정화
1) 분리된 시·공간에서의 슬픔	2) 전력을 다한 가만히 있기
2) 부당한 현실 인식과 분노·미움	3) 무갈등의 일상 지향
3) 조화로운 세계 지향의 욕망	4. 결론

국문초록

西溪 朴世堂(1629~1703)은 17·18세기의 사상가·정치가이면서 문학가이다. 이 시기의 조선사회는 양란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사상적으로도 동요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박세당은 부모형제와 두 아내, 두 아들을 잃는 참담한 경험을 하였고, 8년여의 관직생활에서 신념과 현실의 괴리로 괴로워했다. 그리고 冬至使 書狀官으로 燕行에 참여하여 명·청의 교체를 피부로 느꼈으며, 귀국한 다음해에는 모든 것을 등지고 석천동에 들어가 삼십여 년 동안 농경과 저술활동을 하며 보냈다. 개인적 사정은 물론 국내적·국제적 여건이 평온하지 못했던 박세당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의 삶은 그의 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 특히 ‘눈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계의 시에서 ‘눈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556제 중에서 90여 편 있다. 사용된 시어도 淚・涕・泣・血・漣・啼・鳴・嗷・哭・慟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 속에서 ‘눈물’들은 개인적 정서뿐만 아니라 교유했던 인물들과의 추억, 시국에 대한 근심 등을 담아서 함께 흐르고 있다. 이러한 눈물 흘리기는 결국 세계에 대한 자아(화자이자 작자인 박세당)의 대응방식으로, 박세당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세당의 시 작품에서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눈물’이 나타나는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눈물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도 분비된다. 본고에서 주목한 눈물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생리적 눈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이 격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이다. 박지원에 의하면, 울음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인 七情에 의해서 분출된다. 즉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이 모두 눈물을 일으키는 감정요소인 것이다.

서계 박세당은 그의 시에서 무려 114회 이상의 눈물을 흘리며 七情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눈물들을 살펴보면, 시간이나 공간의 분리에서 야기된 슬픔을 노래한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주변인들의 고통 뒤에 숨겨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시,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욕망의 시가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녹아들어 있는 시는 2편에 불과하다. 이렇듯 복잡다양한 감정들이 작품 속에서 눈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은 서계의 체험이 혹독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시로써 道를 실현하려는 대신 꾸밈없는 情을 표현하고자 한 그의 작시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보다 슬픔, 분노, 미움, 욕망의 눈물이 많은 것은 서계가 현실세계를 조

화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서계의 ‘눈물’은 사무친 감정의 체증을 해소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고, 울분에 차 있던 그를 가만히 있게 하며, 무갈등의 일상을 지향하는 의미를 지닌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정당한 요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그리고 자신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바람이 서계의 눈물에 녹아서 함께 흐른 것이다. 이렇듯 서계의 시는 눈물을 흘림으로써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서계가 오롯이 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주제어 : 박세당, 조선사회, 눈물, 情의 시, 七情, 감정의 정화, 가만히 있기, 무갈등의 일상, 조화

1. 서론

西溪 朴世堂(1629~1703)은 17·18세기의 사상가·정치가이면서 문학가이다. 이 시기의 조선사회는 양란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사상적으로도 동요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소론을 옹호하던 박세당은 부모 형제와 두 아내, 두 아들을 잃는 참담한 경험을 하였고, 8년여의 관직생활에서 신념과 현실의 괴리로 괴로워했다. 그리고 冬至使 書狀官으로 燕行에 참여하여 명·청의 교체를 피부로 느꼈으며, 귀국한 다음해에는 모든 것을 등지고 수락산 기슭의 석천동에서 閑居의 삶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생을 마치기까지의 삼십여 년을 그곳에서 농경과 저술활동을 하며 보냈다.

서계 박세당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논의된 사상연구를 바탕으로 문학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문학 작품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최윤정, 주영아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윤정은

서계의 문학과 사상이 복잡다단한 시대를 통해 이루어진 독자적인 성과물인 동시에 후속 세대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¹⁾ 주영아는 박세당의 문학이 일상생활과 근거리에 있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적으로 교조적이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창작되었다고 하였다.²⁾

범위를 좁혀 박세당의 시 작품을 연구한 것도 있다. 윤미길은 시를 통하여 서계의 내면의 일단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는 먼저 2장에서 박세당의 시론을 살핀 후에 3장에서 박세당의 시세계를 ‘죽음과 꿈, 恨과 哀愁, 禪적인 삶, 閑居와 神仙’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4장에서는 영향관계와 고유관계를 고찰하였다.³⁾ 김동준은 박세당의 작가로서의 성장과정과 작품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과 비평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박세당이 외적 환경에 대응하여 자기 내면의 정과 의를 합당하게 표현하는 양식으로 한시를 체화하며 한국한시사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다.⁴⁾

박세당은 『『柏谷集』序』(1687)와 『詩經思辨錄』(1693)에서 ‘情’의 시가 지닌 우수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의 창작행위의 지침이자 작품에 대한 해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情이 있으니, 정에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다. 이 몇 가지 정이 마음에 쌓이면 말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에는 長短과 節奏가 있으니, 이것이 詩이다. 시는 본래 意와 情을 표현하는 것이니, 정과 의에 맞으면 그만이지 진실로 공교하게 다듬을 것은 없다’⁵⁾라고 하여 道의 실현을 위해 애써 꾸민 것이 아닌

1) 최윤정, 『西溪 朴世堂 문학의 연구-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2) 주영아, 『朴世堂의 사유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1.

3) 윤미길, 『朴世堂의 詩論과 詩世界』, 『국어교육』 104호, 2001.

4) 김동준, 『西溪 朴世堂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12집, 2008.

5) 박세당 지음, 공근식·최병준 옮김, 『서계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6, 139~140쪽.

있는 그대로의 眞情을 표현한 것이 좋은 시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들 박태보가 유배지에서 보낸 시에 대해, ‘詩辭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이에 반드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옛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저촉하는 언어가 없도록 구사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일이 있다’⁶⁾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어의 선택과 조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詩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눈물’에 더 주목하게 된다. 개인적 사정은 물론 국내적·국제적 여건이 평온하지 못했던 박세당의 삶은 그의 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 특히 ‘눈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계의 시에서 ‘눈물’이 등장하는 것은 556제의 작품 중에서 90여 편 있다. 사용된 시어도 淚·涕·泣·血·漣·啼·鳴·嗷·哭·慟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 속에서 ‘눈물’들은 소리 없이 줄줄 흐르다가 흐느끼는가 하면 또 어느 순간 주체하지 못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변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개인적 정서 뿐 아니라 교유했던 인물들과의 추억, 시국에 대한 근심 등이 담겨서 함께 흐르고 있다. 이러한 눈물 흘리기는 결국 세계에 대한 자아(화자이자 작가인 박세당)의 대응방식으로, 박세당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세당의 시 작품에서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그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눈물’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박세당 시에 나타나는 ‘눈물’의 양상

한시는 일정한 글자 수를 정교하게 배합하고 시적 환경을 설정하여

6) 박세당 지음, 최병준 외 옮김, 『서계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08, 22쪽.

그 나뭇의 독특한 미학을 갖는 양식이다. 박세당의 시를 살펴보면, 5언 절구나 5언율시보다 7언절구와 7언율시의 비중이 높다. 7언절구의 경우에도 연시가 많이 있다. 특이한 점은 10구 이상의 장시도 적잖게 눈에 띈다. 그가 이러한 시 형식을 선택한 것은 가능한 많은 글자 수를 길게 배열하여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려 했던 의도로 보인다.

또 서계의 시는 전고를 인용하는 작법이나 문학을 통해 道를 실현하려는 당시의 작시 경향과도 상당히 멀어 보인다.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 앞장서서 문학을 성리학의 규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천명⁷⁾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대부가 과거를 보아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시단의 주류를 형성하던 주자학적 시풍을 따랐기 때문이다. 주자학적 시풍이라고 함은 ‘性’의 시를 말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함부로 쓰는 글은 마음의 道를 수습하는 데에 방해가 되며,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⁸⁾는 입장이다. 따라서 道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에게 있어서 참된 시는 진솔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한 情의 시이다. 그는 “우리 동방의 시는 각각 시대에 따라 중국의 시풍을 배웠는데, 그 비루함이 중국의 경우보다 더욱 심하다. 시를 잘 짓는 자들도 근근이 前人の 찌꺼기를 주워 모아 그럭저럭 文理를 이루는 정도에 불과”⁹⁾하다며 주자학적 시풍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계이기에 그의 시에서 七情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었고, ‘눈물’ 또한 道를 위해 차단되는 일 없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었다.

눈물은 눈알 위쪽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다¹⁰⁾. 눈물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10, 130쪽.

8) 조태흠, 『성정지정의 문학』, 『한국의 문학사상』, 세종출판사, 1998, 192쪽.

9) 박세당 지음, 공근식·최병준 옮김, 『서계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6, 140쪽.

10) 민중서림 국어사전.

도 분비된다. 그리고 이것은 안구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감정 변화로 인한 신체 리듬의 이상을 바로잡는 것까지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¹¹⁾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눈물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생리적 눈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이 격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이다. 이 눈물은 여행길에 오른 박지원이 호곡장에서 흘리는 눈물에 다름 아니다.

“훌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정진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의 특 트인 경계를 보고 별안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중략…) 사람들은 다만 七情¹²⁾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기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함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일세.”¹³⁾

위 글은 1780년 사행단에 참가한 박지원이 5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7

11) 황현옥, 『눈물 많은 남자』, 한솜미디어, 2011, 6쪽. 갑작스레 몰아치는 슬픔이나 기쁨, 화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체 리듬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기 때문에 인체의 자체 치유 능력의 한 현상으로 눈물이 난다. 매우 슬플 때나 화가 났을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

12) 한국고전용어사전에 의하면 七情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의 情이다. 유학에서는 喜怒哀樂愛惡欲을, 『예기』에서는 喜怒哀懼愛惡欲을, 불교에서는 喜怒哀懼愛憎欲을 七情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유학에서의 칠정, 즉 감정 현상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낌을 말한다.

13) 박지원 지음,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상)』, 그린비출판사, 2009, 134~135쪽.

월 8일 요동별관을 바라보며 일행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다. 그는 광활하게 펼쳐진 요동 땅이 크게 통곡할 만한 곳이라며 울음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의하면, 울음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인 七情에 의해서 분출된다. 즉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이 모두 눈물을 일으키는 감정 요소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사람들이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억누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갓난아기의 꾸밈없는 소리를 본받아서 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시에서 유난히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 서계 박세당은 그의 시에서 무려 114회 이상¹⁴⁾의 눈물을 흘리며 七情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눈물들을 살펴보면, 시간이나 공간의 분리에서 야기된 슬픔을 노래한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주변인들의 고통 뒤에 숨겨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시,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욕망의 시가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녹아들어 있는 시는 2편에 불과하다. 이들 시에 흐르는 눈물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1) 분리된 시·공간에서의 슬픔

『서계집 1』에 나타나는 눈물은 대부분 화자의 눈물이다. 한시가 귀족, 양반층의 필수적 교양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서정양식¹⁵⁾이라는 점에서 이 눈물은 작가인 서계 자신의 눈물이기도 하다. 그의 눈물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특히, 슬픈 감정을 노래한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七情에서 슬픔을 뜻하는 ‘哀’는 옷(衣)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내어(口) 우는 모습을 나타낸다.¹⁶⁾ 서계는 시를 통해 종종 슬픈 눈물을 흘렸는데, 그 상황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

14) 『서계집 1』에서 ‘눈물’의 시어가 등장하는 작품은 95편 이상이고, 하나의 작품에 서 2회 이상의 ‘눈물’을 보인 작품도 다수 있다.

15)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8, 53쪽.

16)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144쪽.

과의 사별이나 이별이 대부분이다. 서계의 시에서 유독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挽詩¹⁷⁾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별은 시간 혹은 공간적으로 두 주체가 서로 갈리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서계는 형 박세건의 임소인 흠곡, 북병마평사로 부임했던 함경북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갔던 중국 등에서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며 이별의 눈물을 흘렸다. 이때의 눈물은 공간적 분리에서 오는 슬픔의 표출로 보인다. 또한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간의 분리뿐만 아니라 시간의 분리도 겪어야 했다. 더구나 죽음으로 인한 시공간의 분리는 불가역성을 띤 것이어서 그 슬픔이 가중되어 나타난다.¹⁸⁾

만시 중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悼亡詩’라고 한다. 이것은 진나라의 반악이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悼亡詩’를 지어 애도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서계는 둘째 아내를 잃고 나서 ‘悼亡’과 ‘傷悼’의 시를 남겼는데, 두 편의 입장과 화자, 어조가 다르다. ‘悼亡’은 서계가 광주 정씨의 입장에서 지은 것으로, 결혼생활 동안 했던 고생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을 두고 떠나는 이의 슬픔이나 미련은 보이지 않는다. 눈물도 없다. 반면에 ‘傷悼’은 서계 자신의 입장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며 애통한 어조로 눈물을 흘린다.

傷悼

臥抱痴兒淚滿床	어린아이 안고 누우니 눈물이 침상에 가득하고
雨淋寒屋夜偏長	장맛비 내리는 차가운 집에 밤마저 길어라
十年窮餒快離脫	십 년 동안 곤궁하고 주리다가 훌쩍 떠났으니

17) ‘輓詩’라고도 하는데, 이 때의 ‘輓’은 ‘상여를 끈다’에서 나온 것이다.

18) ‘送徐參奉南還’, ‘送柳子文成煥’, ‘感懷’ 등은 살아있는 사람들 간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슬픔을 담은 시이나, 대부분의 만시는 생사의 엇갈림으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슬픔을 담은 것이다.

不念人間老獨傷 인간 세상 늙은이 홀로 상심함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痴兒問我母何之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 갔느냐고 묻기에
欲答潸然淚自垂 답하려고 하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只爲冥茫迷去向 다만 아득하여 간 곳을 알 수 없으니
教伊無處說寒飢¹⁹⁾ 너희에게 춥고 배고픔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네

위 인용문은 『傷悼』의 2수와 4수이다. 서계는 38세에 첫째 부인 의령 남씨를 잃고, 39세이던 1667년(현종8)에 광주 정씨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둘째 부인마저 1678년(숙종4), 그가 50세이던 해에 죽었다. 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정씨가 죽었을 때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서계의 슬픔이 더했던 것 같다.²⁰⁾

인용된 두 수는 아내의 부재를 애통해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먼저, 2수에서는 죽음 너머의 세계로 훌쩍 떠나버린(離脫) 아내로 인한 슬픔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인간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아이와 누워있는 서계의 침상에는 눈물이 가득하다. 그가 흘리는 이 눈물에는 홀로 남은 상심과 십 년 동안 힘들게 살다간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엄마 없이 살아갈 아이에 대한 걱정들이 뒤엉켜 있다. 그런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시공간은 더 이상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공간을 유지할 수가 없다. 장맛비가 내리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있는 집은 차가운 공간이 되고, 밤이라는 시간 또한 하염없이 길어지는 것이다. 시간에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과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 심리적인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과는 달리 신축자재로 펼쳐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

19)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141~142쪽.

20) 『傷悼』의 5수에서 서계는 ‘昔年會抱哭亡悲(예전에 아내를 잃고 슬퍼 곡할 때는) / 猶是兒長身壯時(그나마 아이가 장성했고 이 몸도 한창이었지) / 今日悲深難禁淚(오늘 몹시 슬퍼 눈물을 금하기 어려운 것은) / 只緣身老又兒痴(이 몸이 늙은 데다 아이마저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아이들이 어려서 喪妻한 슬픔이 더욱 크다고 말하고 있다.

며 또 때로는 주관화되기도 한다.²¹⁾ 여기에서 서계가 느끼는 시간은 온갖 상념과 걱정들이 줄을 이어 길어진 심리적 시간이다. 그 시간만큼 눈물도 침상을 가득 메우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4수에서는 엄마의 행방을 묻는 아이를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주르륵 흐르는 눈물(漣然淚自垂)에 담아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분리가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서, 답하려는 서계의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먼저 흐른 것이다. 여기에서 ‘눈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漣’과 ‘淚’로 거듭 사용된 것은 화자의 슬프고 막막한 심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눈물이 어린 아이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엄마의 부재가 불안한 아이에게 ‘굶고 배고픔이 없는 곳(無處說寒飢)’으로 갔다고 위로하며 안심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 답변은 또한 아이뿐만 아니라 서계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부모로서 아이의 추위와 배고픔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다. 여지껏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서계는 이제서야 비로소 아내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미안해하며 아내가 편안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늙은 몸으로 어린 아이들을 키울 일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계의 복잡한 심리들은 눈물이 되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반 사대부 남성의 시에서는 찾기 어려운 절절한 감정의 표현이다. 이것은 박세당이 ‘情’의 시를 긍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귀 기울여 표현하고자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2) 부당한 현실 인식과 분노·미움

박세당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가치의 시대에 살았다. 대외적으로는 명청교체기를 지나 청의 기반이 다져지던 때이고, 대내적으로는 붕당정치의 격정기였다. 박세당은 정치적으로 비주류인 소론의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래서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해지

21)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344~345쪽.

는 위협들을 자주 목격하였는데, 그의 시에서 종종 분노와 미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런 배경들 때문일 것이다.

送雲路歸湖中

血章緘拜奏楓宸	충심어린 소장 봉하여 대궐에 절하며 올리니
萬鎬何論集一身	모든 화살이 한 몸에 집중됨을 어찌 논하겠는가
白首放歸江海去	백발의 머리에 쫓겨나 강해로 돌아가니
故人相送淚沾巾 ²²⁾	오랜 벗을 전송함에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送雲路相國使燕

萬里山川圖裏見	만리 산천은 그림 속에서 보았고
千年人物卷中論	천년 인물은 책에서 논했네
峙流不改還身到	변함없는 산천에 돌아와 몸소 이르니
興歇無端但目存	끝없는 흥망이 다만 눈에 남아 있네
涿野近平黃帝轍	탁록에는 지금 황제의 자취가 사라지고
金臺久斷樂生魂	황금대에는 악의의 혼 끊어진 지 오래네
古今何限英雄涕	영웅의 눈물이 고금에 어찌 한량 있으랴
去訪遼東聽鶴言 ²³⁾	요동을 방문하면 학의 말을 들어 보오

「送雲路歸湖中」 전문과 「送雲路相國使燕」 6수 중의 첫 수이다. 운로는 소론의 거두로 활약했던 남구만의 字인데, 남구만은 서계의 처남이고 친구이며 뜻을 같이하는 同人이었다. 「送雲路歸湖中」은 1675년 1월에 종실 이정과 이남의 방자함을 경계하는 소장을 올렸다가 체직되어 호서의 결성으로 돌아가는 남구만을 전송하며 읊은 것이다. 남구만은 이후에도 정치적 浮沈이 잦았는데, 1679년(숙종 5년)에 남인의 지도자였던 허적의 서자 허견의 비행을 상소한 일에 대한 책임으로 유배를 간 일도 있

22)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113쪽.

23) 위의 책, 195~196쪽.

었다.²⁴⁾ 당시 숙종은 서자의 비행을 두둔한 허적을 위로하였지만 허적은 결국 1680년 그 서자의 비리에 연루되어 사형되고 만다.

이렇듯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봉당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던 시기였기에, 바른 판단과 바른 언행은 도리어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위협에 빠뜨리기 일쑤였다. 게다가 남구만은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의 반대파인 소론의 거두였으니 ‘모든 화살이 한 몸에 집중됨’이 당연했다. 온갖 공격을 받고서 상처투성이인 채로 물러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상 나서서 싸운다고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오랜 벼를 전송함에 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만 흘리고 있다. 모든 상황을 간파한 상태에서 울분을 참는 눈물은 전력을 다해 가만히 있고자 하는 서계의 의지적 선택으로 보인다.²⁵⁾

『送雲路相國使燕』은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남구만을 보내며 쓴 시이다. 이 시는 1680년 이후의 기록인 <석천록 中>에 실려 있다. 서계는 1668년 겨울부터 1669년 봄까지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왔다. 남구만보다 먼저 중국에 다녀온 그는 남구만의 발걸음을 예상하며, 명칭 교체를 피부로 느낀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미리 전하고 있다.

인용된 부분은 마지막 두 구를 제외하면 모두 대구를 이루고 있다. 첫 구와 둘째 구는 그림에서 보던 산천과 실제의 산천, 서책에서 논하던 인물과 실제의 인물이 대비를 보인다. 셋째 구와 넷째 구도 대구를 이루는데 산천과 인물이 ‘변함없는 산천(峙流不改)’과 ‘끝없이 흥망한 국가(興歇無端)’로 운명을 달리하는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다섯째 구부터 마지

24) 숙종실록 1679년 3월 19일 기사.

25) 남구만이 유배가기 전에 서계가 보낸 서간에서 울분을 감추는 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의 도리는 오직 써 주면 나아가 나의 충성을 다하고 버리면 물러나 나의 운명을 평안히 여기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기세를 크게 떨쳐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이는 자들과는 함께 시비를 따질 수 없습니다.” 박세당 지음, 최병준 외 옮김, 『서계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08, 121~122쪽.

막까지는 사라진 인물들을 그리며 명청교체를 바라보는 서계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潞野近平黃帝轍’은 『史記』에 나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인데, 괴물 치우가 탁록 판전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황제가 지남거를 만들어 무찌른 일을 말하며 황제의 자취가 사라졌다는 것은 중화의 문명이 청에 의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 때 ‘청’을 흉측한 모양의 괴물 치우에 비유한 것에서 서계가 ‘청’을 부당하고 야만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멸망한 나라의 영웅들이 고금에 흘리는 한량없는 눈물(古今何限英雄涕)은 옛적에 그들이 실제 흘렸던 눈물이면서 동시에 현재 서계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이입된 상상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⁶⁾

이 밖에도 분노와 미움의 눈물이 담긴 시에는 「金參判始振挽」, 「廣寧作」, 「聞雲路謫配海島遙寄此詩」, 「朴承旨元度挽」, 「中夜悲歌泣孝宗」 등이 있다.

3) 조화로운 세계 지향의 욕망

박지원은 울음의 근원으로 七情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욕심이 사무쳐도 울게 된다고 하였다. ‘욕심’은 사전적 의미로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²⁷⁾이라고 하여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하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여 가치중립적이면서 ‘慾’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七情의 ‘欲’을 ‘욕망’으로 해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6) 그런데 서계는 홍문관 수찬으로 있던 1667년에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실리주의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며 상소를 올린 적이 있다. 「送雲路相國使燕」에 나타나는 청에 대한 감정은 상소문의 그것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공적 글쓰기와 사적 글쓰기의 차이로, 감정적으로는 청이 밋고 화가 나지만 실리적인 면에서 배척할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7) 민중서림 국어사전.

앞서 말했듯이 박세당의 시에서 눈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슬프고 성나며 미워하는 감정이 사무칠 때 솟구쳐 나온다. 전자의 상황은 자아와 세계의 간극이 없이 조화롭기 때문에 화자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족을 느낄 일도,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상황에서는 달라진다. 자아가 느끼는 세계와의 거리가 너무 커서 상황을 바꾸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또 그러한 욕망에 기댈수록 조화롭지 못한 현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그래서 서계는 차라리 비현실의 세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린다.

次東坡四時詞韻

小庭寥寥深院落	작은 뜰은 고요하고 깊은 정원 쓸쓸하니
春早輕寒籠翠幕	이른 봄 꽃샘추위가 비취 장막 뒤덮네
繞渠晴煙惹細草	도랑에 감긴 안개가 개어 고운 풀을 이끌고
滿簾紅日媚小蓊	주렴에 가득한 붉은 해는 작은 꽃을 간절이네
玉人緘恨暗銷肌	옥인이 한을 봉하여 남몰래 몸속에 감추니
一點香心訴向誰	한 점 향기로운 마음을 누구에게 호소할까
東風十日淚不乾	봄바람 열흘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
紅雨斑斑濕羅衣 ²⁸⁾	붉은 비가 아롱아롱 비단옷을 적시네

壬午三月二十九日作

夢中啼不已	꿈속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身與親愛離	몸이 가족과 헤어졌다네
去途千萬里	떠나는 길 천만 리
又未定歸期	돌아올 기약도 없었네
心知死生事	마음속에 알던 생사의 일이
寧復異於斯	이 꿈과 다를 게 없구나

28)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365쪽.

勿妄爲悲嗟 함부로 슬퍼하지 마라
通人嗔爾痴²⁹⁾ 통인이 어리석다 성낼 것이다

위의 두 시는 『次東坡四時詞韻』의 첫 수와 『壬午三月二十九日作』의 전문이다. 『次東坡四時詞韻』은 동파³⁰⁾의 『四時詞』에 차운한 것인데 인용된 부분은 봄을 노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시에서의 봄은 완전한 봄이 아니라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는 꽃샘추위와 이를 견디는 꽃, 풀, 바람 등을 그리고 있다. 점점 따뜻해진 날씨 탓에 마음은 한껏 열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로 맞닥뜨린 꽃샘추위는 겨울의 매운 추위 못지않게 매섭고 차게 느껴진다. 그래서 얼른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게 된다. 한을 봉하여 남몰래 감추고(緘恨暗銷肌)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淚不乾). 고운 풀과 작은 꽃이 기다리는 봄은 만물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세계이자, 서계가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서계는 붉은 비(紅雨)의 눈물을 흘리며 현실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진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壬午三月二十九日作』은 박세당이 죽기 한 해 전인 1702년에 지은 시다. 노환으로 힘들어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꿈속에서 미리 겪었다. 그러니 이 시에서의 눈물은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의 눈물로,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떠나며 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눈물이 슬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지막 두 구에서, 남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전하는 서계의 의도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함부로 슬퍼하지 마라 / 통인이 어리석다 성낼 것이다(勿妄爲悲嗟 / 通人嗔爾痴)”에서 생사를 꿰뚫어 볼 때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서계는 생애 동안 슬픔과 분노를 거듭 반복하며 세계와의 부조화로 고통 받았다. 그에게 사후의 세계는 어쩌면 더 이상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29) 위의 책, 388쪽.

30) 중국 북송의 문인인 蘇軾(1036~1101)의 호.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서화에 도 능했다. 작품에 『적벽부』, 『동파전집』 등이 있다.

조화로운 세계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꿈속에서의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자아와 세계의 간극이 없는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3. 박세당 詩에 나타난 ‘눈물’의 의미

서계의 시에서 화자가 만나는 세계는 자아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고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눈물을 흘리게도 만든다. 이때 눈물은 자아가 세계와의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세계와의 동일성을 추구³¹⁾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傷悼』에서 화자가 직접 흘리는 눈물은 ‘雨淋寒屋夜偏長(장맛비 내리는 차가운 집에 밤조차 길어라)’과 같이 세계를 자아의 감정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동일성을 이루었다. 또 『李生濂內子挽』에서 화자가 수놓 봉황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바라보는 새끼 새들의 눈물도 자아가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서계 시에서 ‘눈물’은 서계의 의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눈물은 단순한 물질이나 현상이 아니라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계 시에 나타난 눈물들은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을까.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소를 통한 감정의 정화

어떤 감정의 덩어리가 커지고 커져 체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이 잘 소화되어 체증이 내려가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개개인에 따라 심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서계는 눈물을 통해 감정의 정화를 이루고자 한 것으로

31) 김준오, 『詩論』, 삼지사, 2004, 39쪽.

보인다.

述悲

目猶識物	눈은 오히려 사물을 잘 보는데
不見汝形	네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耳尙辨音	귀는 아직도 밝은데
不聞汝聲	네 목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汝去何往	너는 어디로 갔기에
滅影息響	그림자도 메아리도 없느냐
我悲不勝	나는 슬픔을 이길 수 없어
終竟此生 ³²⁾	죽을 것만 같구나

湖南處士徐君鳳翎 有傷亡子泰維詩數篇鄭生萬迪 傳示於余斷猿之
痛不能自勝爲答其意

老人哭其子	늙은이가 자식을 곡하려니
至死蓄深悲	깊은 슬픔이 쌓여 죽을 지경이네
痛劇腸斷裂	고통이 극심해 애가 끊어지건만
呼號誰聞知	울부짖는 소리 누가 알아들으랴
(…중략…)	
感激可動人	감격스러움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懇惻乃至斯	정성스런 슬픔이 경지에 이르네
君子意不苟	군자의 마음이 적지 않지만
此事罕見之	이 일은 드물게 보는 것이라서
情隘不知謝	정이 가득차는데, 사례할 줄 모르고
但有涕泗垂 ³³⁾	눈물만 줄줄 흘러내리고 있네

위의 두 시는 서계가 58세 되던 해인 1686년 3월에 장남 박태유³⁴⁾가

32)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209쪽.

33) 위의 책, 210~211쪽.

34) 박태유(1648~1686)는 1681년 문과 알성시에 급제하여 1683년 지평이 되었다.

사망하자, 이를 몹시 슬퍼하며 아픈 마음을 옮겨놓은 것이다.

앞에 인용된 시는 『述悲』의 3수 중 첫 수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먼저 간 아들을 애타게 찾으려 하면서 자신의 눈과 귀가 밝은 것을 오히려 한탄한다. 차라리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못 보거나 귀가 어두워서 그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슬픔의 정도가 덜했을지도 모른다. 화자는 가고 없는 아들의 그림자와 메아리 같은 희미한 흔적까지 찾으려 하며, ‘我悲不勝 / 終竟此生’이라며 죽을 만큼 슬퍼서 견디기 힘든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슬픔이 너무 크면 울음도 나오지 않는가 보다. 父母喪을 겪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하여 멍멍하게 있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경우가 있다. 이 시에서 자식을 잃은 서계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뒤의 시는 『湖南處士徐君鳳翎 有傷亡子泰維詩數篇鄭生萬迪 傳示於余 斷猿之痛不能自勝爲答其意』(호남의 처사 서군 봉령이 망자 박태유를 슬퍼하며 몇 편의 시를 지어서 정생 만적이 나에게 전해 보여주었다. 단장의 아픔을 이길 수 없어 그 뜻에 답한다)의 일부분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후에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는 아무도 모르는 내밀한 울음이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아들의 친구 서봉령이 함께 슬퍼하며 그 마음을 시로 보내왔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서봉령의 슬픔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그제야 체했던 슬픔을 ‘눈물’로 터뜨리며 해소할 수 있었다.

화자가 참았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바로 ‘同苦’의 마음으로 쇼펜하우어의 사상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함께 할 대상으로서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이다. 따라서 同苦란 자신과 타

이어 정언에 재직하던 중, 같은 서인인 어영대장 김익훈이 남인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데 반발하며 탄핵하다가 거제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이후에도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히 비판하였다. 그러다가 함경도의 고산도 찰방으로 좌천되었는데, 원래 건강하지 못했는데다가 고산의 기후도 맞지 않아 병이 악화되었다. 1685년에 병으로 사직하고 이듬해에 생을 마감하였다.

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³⁵⁾을 말한다. 서계가 지은 다수의 挽詩들에서의 눈물도 사별한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同苦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즉, 그의 시를 통해 서로가 함께 울어주며 사무치게 슬픈 감정을 조금씩 해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력을 다한 가만히 있기

눈물은 격한 감정의 산물이다. 여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움직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력을 다해 감정을 분출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서계의 눈물 또한 세계와의 불화에서 오는 울분을 삭히며 전력을 다해 가만히 있기 위한 행위이다. 32세 때에 이미 폐비 윤씨의 장례식 복장에 대한 의견을 펼치면서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서계는 옳고 그름이 아닌 봉당의 힘에 의해 힘겨운 벼슬살이를 해야 했다. 특히 정국을 주도하던 노론과 반대의 입장에 있던 그는, 두 아들에게 항상 말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태보가 결국 함부로 입을 놀려 죄를 얻고 말았으니, 죄를 받은 것이 과연 이 정도에서 그칠 뿐이겠느냐. 말할 수 없이 두렵다. 또 염려스러운 점은 이로 인해 크게 분란이 일어나 세도의 근심거리가 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가 비단 그 개인 한 몸에만 있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이 더욱 우려되고 두렵다.³⁶⁾

요즘 세상 사람들의 소행을 보면, 가부를 떠나 서로 도와 소금과 식초로 조미하고 물과 불로 조리하듯 정사를 잘 다스리기를 어떻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오로지 남이 자기에게 뇌동하기만을 바랄 뿐이어서 저쪽도 이 모양이고 이쪽도 이 모양이니, 정말이지 이른바 ‘까마귀

35)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쇼펜하우어&니체』, 김영사, 2011, 51쪽.

36) 1681년 12월 21일에 아들 태유에게 부친 편지 중 일부(박세당 지음, 최병준 외 옮김, 『서계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08, 3쪽).

의 암수’라 하겠다.³⁷⁾

위의 글에서 둘째 아들 태보가 받은 죄는, 1681년 12월에 박태보가 상소하여 문묘 종사의 승출을 가벼이 의논하지 말 것을 청하고 이조 판서 이단하의 죄를 따져 물었는데, 이 일로 파직된 것을 말한다. 이후에도 서계는 아들의 소장에 쓰일 문구 하나까지 점검하며 ‘함부로 나대지 않기’를 요구하였다. 그로서는 전력을 다해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처세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계의 의지는 그의 시에도 나타난다.

閱唐人詩有作回文體因效其體寄泰輔

流竄當思深戒前	유배지에서 이전의 일 깊이 경계하기를 생각하고
也知兒孝在身全	자식의 효도는 몸을 온전히 함에 있음을 알거라
悠悠一夢歸鄉遠	아득한 꿈속에서는 먼 고향으로 돌아오건만
踽踽孤蹤寄郡偏	쓸쓸히 외로운 신세 외진 고을에 의탁하였구나
頭白泣多傷落日	백발의 나는 눈물이 많아서 지는 해에도 상심하고
眼昏措久望寒天	눈이 어두워 오랫동안 비비며 찬 하늘 바라본다
愁中病劇仍年暮	시름 속에 병이 심해지고 해도 저물어 가는데
雁信傳稀道里千 ³⁸⁾	기러기 소식 전함의 드무니 길이 천리이구나

『閱唐人詩有作回文體因效其體寄泰輔』는 당나라 사람이 회문체로 지은 것을 보고 그 체를 본받아 써서 태보에게 부친 시이다. 회문체는 시어를 바둑판처럼 배열해 놓아서 처음부터 읽거나 끝에서부터 읽거나 중앙에서부터 돌려 읽을 수 있고 운도 다 맞는 시 형식이다. 위의 인용된 부분은 뒤에서부터 읽은 것이다.

이 시에는 자식을 유배지에 보내고 상심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그려져

37) 1683년 11월 2일에 아들 태유에게 부친 편지(위의 책, 10쪽). ‘까마귀의 암수’는 『시경』, 『소아』에서 까마귀 암수가 서로 닮아서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데, 서로 간의 시비와 선악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다.

38)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128쪽.

있다. 서계의 아들 박태보는 대상과의 친소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³⁹⁾ 조정의 대신들과 부임지의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인물이었다. 정의를 우선하던 박태보는 그의 깨끗한 성품 탓에 잦은 정치적 부침과 2번의 유배를 당했다. 심지어 그의 죽음도 1689년에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가던 중에 獄毒으로 인한 것이었다. 위의 시는 그보다 앞서 1677년 예조좌랑으로 있을 때 試官으로서 출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선천으로 유배갔을 때의 일이다.

시에서 서계는 자신의 심회를 밝히기에 앞서 유배지에 있는 아들에게 앞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당부한다. 우선 이전의 일을 깊이 경계하라고 하였다. 이전의 일은 과거시험의 출제 문제이기도 하고, 서간에서 말했던 ‘함부로 입을 놀리는’ 따위의 일이기도 하다. 비록 태보의 언행이 바른 것이라고는 해도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님을 알기에 자식의 안전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示泰輔』라는 시에서도 “한 걸음 갈 적에 한 걸음 천천히 감을 잊지 마라 / 더디 감은 안온하고 빨리 감은 위태로운 법(一步無忘一步遲 / 遲行安穩疾行危)”이라고 하여, 아들의 행보에 위태함을 느끼며 거듭해서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가족과의 가슴 아픈 사별을 여러 번 겪었던 서계에게는 정의의 실현 못지않게 가족의 안녕이 중요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 정의가 개인의 바른 판단과 투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전력을 다해 가만히 있으며 때를 기다리고자 한 서계의 눈물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39) 노론의 거두인 송시열과 외조부인 윤선거가 정적으로 있을 때, 사심을 떠나 공정하게 의리에 기준을 두고 시비를 가리기도 했다.

3) 무갈등의 일상 지향

한국고전용어사전에 의하면, 七情에는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의 감정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 모든 감정이 사무칠 때에 울음이 터진다고 했다. 그런데 박세당 시에 나타나는 눈물의 양상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인한 눈물은 거의 없고,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욕망의 감정이 격해져서 솟구치는 눈물들로 가득하다. 그의 시가 스무 살 무렵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그가 인지한 현실의 삶은 자아와 조화롭지 못한 갈등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判書世華挽

瀕死病中哀涕垂	죽음이 가까운 병중에서 애도의 눈물 흐르니
公亡時屬桂輪虧	공이 돌아가실 때가 마침 달이 이지러질 때였지
人間萬事多傷感	인간 만사 가슴 아픈 일이 많으니
獨我情懷誰復知 ⁴⁰⁾	유독 나의 정회는 누가 다시 알아줄까

李生慶濩挽三首

默數親知無幾全	가만히 지인들 헤아려 보매 온전한 이 거의 없는데
聞君奄忽更潸然	그대도 홀쩍 갔다는 말 들으니 더욱 눈물이 흐르네
不知久活終何好	알 수 없어라 오래 사는 게 종내 무에 좋을까
眼暗多緣哭少年	눈 침침한 건 모두 다 후생을 곱함 때문이지

無處人間可避藏	인간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으니
陽搜陰索毒相戕	양으로 찾고 음으로 찾아서 모질게 서로 죽이네
天門大闢容登訴	하늘 문이 크게 열려 화평한 곳에 올라갔다면
群厲從今一掃亡 ⁴¹⁾	온갖 재액 오늘부터 말끔히 없어지리니

40)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346쪽.

41) 위의 책, 347~348쪽. 『李生慶濩挽三首』의 첫수와 3수.

위의 두 작품은 서계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마음을 읊은 것이다. 먼저, 『李判書世華挽』은 판서 이세화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이 때는 서계의 나이도 70을 훌쩍 넘어 노병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이 세화는 서계와 생몰연대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박태보와 함께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고 남구만과 교유하는 등 정치적 견해와 경험 등에서 공통분모가 많은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을 것이다.

병중에서 흘리는 서계의 눈물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역할도 하였다. ‘인간 만사 가슴 아픈 일 많으니 / 유독 내 정회는 누가 다시 알아줄까(人間萬事多傷感 / 獨我情懷誰復知)’라고 하며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고통들을 곰곰이 되짚어본 그는, 그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과 마음을 공유하던 이판서를 잃었으니 누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겠느냐며 깊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때 그가 바라본 인간의 세상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로 가득한 곳이었다.

『李生慶濩挽三首』의 첫 수에서도 가깝게 지내던 이경호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한편, ‘알 수 없어라 오래 사는 게 종내 무에 좋을까(不知久活終何好)’라며 삶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구체적인 원인은 3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세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으니 / 양으로 찾고 음으로 찾아서 모질게 서로 죽이네(無處人間可避藏 / 陽搜陰索毒相戕)’라고 하여 노론의 정적이 되면 어떠한 논리나 주장의 옳음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진 죽음을 당해야 했던 소론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挽詩의 대상인 이경호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지만, 남겨진 편지로 미루어 보아 서계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그가 효성이 깊고 능력이 출중하여, 임금의 기대까지 받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이 더 가슴아팠던 것으로 보인다.⁴²⁾

이처럼 자아와 화합하지 못하는 세계로서의 삶을 인식한 박세당은 차라리 갈등이 없는 죽음이 낫다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李生慶濩挽

42) 박세당 지음, 최병준 외 옮김, 『서계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08, 232쪽 참고.

三首』의 3수에서 바라본 사후의 세계는 화평한 곳이라서 온갖 재액이 사라지고 없는 곳이다. 이렇듯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고인과 자신의 삶을 고단하게 했던 갈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는 『呂相國聖齊挽』⁴³⁾에서도 ‘죽음이 삶보다 나은 점 있으니 / 죽음을 슬퍼함은 어리석은 것이다(死有勝於生 / 哀死爲不智)’라며 죽음이 삶보다 낫다고 하였다. 작중 청자인 여성제(1625~1691)는 시끄러운 정국에서 소론의 인물이었는데, 박세채, 남구만을 돕다가 유배된 일이 있으며 이세화와 같이 인현왕후의 폐출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계로서는 누구보다 가깝게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며 서계는 죽음이 삶보다 낫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서계가 인식하는 현실세계가 고통스러웠다는 반증이다. 이 시가 지어질 때 서계는 이미 부모형제와 처자식들을 잃었고, 정치사회적 혼란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이어왔다. 그러니 갈등이 없는 죽음의 세계가 낫다고 하는 그의 말도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서계가 진실로 원한 것이 죽음이었을까. 그의 은거생활이 시작된 <석천록 上>에 수록된 『藥泉別業贈南雲路』의 4수와 『閑人』의 첫 부분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한다.

藥泉別業贈南雲路

聞君見說湖中勝	그대에게 들으니 호중에 승경이 있는데
勝處偏多可種花	꽃을 심을 만한 곳이 유난히 많다지
安得將家隨共隱	어찌하면 가솔 데리고 그대 따라 은거해서
秧苗罌蟹送生涯 ⁴⁴⁾	모내기하고 게 잡으며 생애를 보낼 수 있는지

43)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276쪽.

44) 위의 책, 118쪽.

閑人

求名求利等勞神	명예를 구하든 이익을 구하든 정신을 괴롭히기는 같으니
誰似愚夫解爲身 ⁴⁵⁾	누구든 어리석은 사람이 제 몸을 위할 줄 아는 것 만 하겠는가

위의 두 시가 지어진 시기는 1668년에서 1680년 사이이다. 이 때 서계는 정치 생활에 환멸을 느끼며 양주의 석천에서 지냈다. 둘째 아내와 두 아들도 죽기 전이다. 『藥泉別業贈南雲路』는 남구만이 있는 광진에서 이별하며 지은 것으로 가족과 함께 은거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서계의 심정을 비추고 있다. 자신은 석천동에 은거해서 만족스런 삶을 누리지만, 두 아들이 아직 위태로운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니 마냥 편치만은 않았던 것이다.

「閑人」은 6촌 아우인 박세채가 서계가 시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듣고 답하면서 쓴 시이다. 답변에서 박세당은, “나는 시인이 되느니 차라리 한가한 사람이 되는 게 낫다. 시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그마한 명성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성은 남에게 달려 있고 한가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내 장차 명성을 위하랴, 남을 위하랴.”라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십 년간의 벼슬살이를 통해 서계가 느낀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실과 정의가 뒤바뀔 수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었다. 또한 훌륭한 인물에 대한 명성이 그러한 현실에서는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자신의 의지로 세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은거를 택하여 자신의 행복을 열어가고자 했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볼 때 서게 박세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죽음
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일상이 아니었을까 한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
적·공간적 거리를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정당한 요구가 합리적으로

45)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119쪽.

받아들여지는 곳, 그리고 자신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바람이 서계의 눈물에 녹아서 함께 흘렀을 것이다.

4. 결론

西溪 朴世堂(1629~1703)은 17·18세기의 사상가·정치가가이면서 문학가이다. 개인적 사정은 물론 국내적·국제적 여건이 평온하지 못했던 박세당의 삶은 그의 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 특히 ‘눈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계의 시에서 ‘눈물’이 등장하는 작품은 556제 중에서 90여 편 있다. 사용된 시어도 淚·涕·泣·血·漣·啼·鳴·噉·哭·慟 등으로 다양하다. 작품 속에서 ‘눈물’들은 개인적 정서뿐만 아니라 교유했던 인물들과의 추억, 시국에 대한 근심 등을 담아서 함께 흐르고 있다. 이러한 눈물 흘리기는 결국 세계에 대한 자아(화자이자 작자인 박세당)의 대응방식으로, 박세당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박세당의 시 작품에서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눈물’이 나타나는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눈물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도 분비된다. 본고에서 주목한 눈물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생리적 눈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감정이 격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이다. 박지원에 의하면, 울음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인 七情에 의해서 분출된다. 즉 喜, 怒, 哀, 樂, 愛, 惡, 欲이 모두 눈물을 일으키는 감정요소인 것이다.

서계 박세당은 그의 시에서 무려 114회 이상의 눈물을 흘리며 七情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눈물들을 살펴보면, 시간이나

공간의 분리에서 야기된 슬픔을 노래한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주변인들의 고통 뒤에 숨겨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시, 조화로운 세계를 꿈꾸는 욕망의 시가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녹아들어 있는 시는 2편에 불과하다. 이렇듯 복잡다양한 감정들이 작품 속에서 눈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은 서계의 체험이 혹독했던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시로써 道를 실현하려는 대신 꾸밈없는 情을 표현하고자 한 그의 작시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보다 슬픔, 분노, 미움, 욕망의 눈물이 많은 것은 서계가 현실세계를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서계의 ‘눈물’은 사무친 감정의 체증을 해소하여 정화할 수 있게 하고, 울분에 차 있던 그를 가만히 있게 하며, 무갈등의 일상을 지향하는 의미를 지닌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정당한 요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그리고 자신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바람이 서계의 눈물에 녹아서 함께 흐른 것이다. 이렇듯 서계의 시는 눈물을 흘림으로써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서계가 오롯이 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박세당 지음, 강여진 옮김, 『서계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박세당 지음, 공근식·최병준 옮김, 『서계집 2』, 민족문화추진회, 2006.
박세당 지음, 최병준 외 옮김, 『서계집 4』, 한국고전번역원, 2008.
숙종실록 기사.

2. 단행본

- 김선희, 『철학자가 눈물을 흘릴 때-쇼펜하우어&니체』, 김영사, 2011.
김준오, 『詩論』, 삼지사, 2004.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8.
박지원 지음, 고미숙·길진숙·김풍기 옮김,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 일기(상)』, 그린비출판사, 2009.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한태문, 『조선통신사의 길에서 오늘을 묻다』, 경진, 2012.
황현옥, 『눈물 많은 남자』, 한숨미디어, 2011.

3. 논문

- 김동준, 「西溪 朴世堂의 詩文學」, 『한국한시작가연구』 12집, 2008, 63~95쪽.
김중수, 「西溪 朴世堂의 使行 書信과 赴燕詩」, 『民族文化』, 37집, 2011, 115~147쪽.
김홍규, 「西溪 朴世堂의 詩經論-朝鮮後期 詩經論의 전개에 있어 『詩經 思辨錄』의 위치」, 『한국학보』 6집 3호, 1980, 23~45쪽.

박미향, 「박세당 저술을 둘러싼 논쟁과 소통」, 『지방사와 지방문화』14집 2호, 2011, 163~190쪽.

윤미길, 「朴世堂의 詩論과 詩世界」, 『국어교육』 104호, 2001, 291~322쪽.

조태흠, 「性情之正의 문학」, 『한국의 문학사상』, 세종출판사, 1998, 189~202쪽.

주영아, 「朴世堂의 사유체계와 작품세계」,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1.

주영아, 「朴世堂의 開放的 學問觀 研究」, 『東方學』 20집, 2011, 7~54쪽.

최윤정, 「西溪 朴世堂 문학의 연구-사상적 특징과 문학과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7.

<Abstract>

The Meaning of ‘Tears’ Shown in Park Se-dang’s Poetry

Choi, You-mi

Seo-Gye Park Se-dang (1629~1703) is a thinker, politician and literary man of 17~18 century. Joseon society of the period had been shaken in terms of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s well as ideologically under the influence of two wars. In such a circumstance, Park Se-Dang had terrible experiences losing parents and brothers, two wives and two sons and had suffered from the gap between belief and reality during 8 years of the government office life. He felt the transition of the Mi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through the skin while participating in Yeon-Haeng(燕行) as a Dong-Ji-Sa Seo-Jang-Gwan(冬至使 書狀官) and since next year of returning, he had lived apart from the world and entered to Seok-Chun-Dong and spent his time in farming and writing for 30 years.

While Park Se-dang’s life where personal circumstance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were never calm is directly projected in his poetry, the fact that especially ‘tears’ is found a lot seems to be related to this. In Seo-Gye’s poetry, there are many more 90 pieces where ‘tear’s appeared among 556 works. Poetic words used are various such as Lu(淚) · Che(涕) · Eub(泣) · Hyeol(血) · San(漣) · Je(啼) · O(鳴) · O(嗷) · Gog(哭) · Tong(慟), etc. ‘Tears’ in the works flows together containing not only personal emotions but also

memories of the people associated, the anxiety about the current situation, etc. While shedding tears is ultimately the way of responding from self (Park Se-dang who is a speaker and also author) toward the world, it seems it has been derived from the will of Park Se-dang.

Therefore, this paper was trying to find what the 'tears' means in Park Se-dang's poetry. The pattern in which 'tears' appears was investigated together as the process of tracking the meaning.

While tears can come out by a variety of external stimuli, it also can be secreted even in the state when the emotion runs high. The tears noted in this paper is the tears flowing down naturally by the high emotion inside of human, not the physiological tears by external stimuli. According to Park Ji-won, crying is ejected by seven feelings(七情) that are all emotions that human can feel. So, all of Hui(喜), No(怒), Ae(哀), Lag(樂), Ae(愛), O(惡) and Yog(欲) are emotional factors causing tears.

Se-Gye Park Se-dang is fully putting out seven feelings(七情) while shedding tears as many as more than 114 times in his poems. When looking at the tears appeared in his poetry, the poetry singing sadness resulting from the separation of time or space is overwhelmingly a lot. Then, there is the poem of the anger and hatred for the unjust reality hidden behind the suffering of people around and the poem of desire dreaming of a harmonious world but there are only 2 poems where the joy and pleasure are blended.

While a variety of complex emotions are flowing as tears in the works, a harsh experience of Seo-Gye could be a reason of it, but his versification intention which tried to express unaffected Jeong(情)

instead of realizing Do(道) with the poetry seems to have significant effects. Also, the reason that the tears of sadness, anger, hatred and desire were seen more than the tears of joy and pleasure seems to be coming from Seo-Gye's recognition of the world as not harmonized.

Such tears of Seo-Gye has a meaning that allows relieving the congestion of the feelings deep inside, cleaning up it, having him still and directing the daily life with no conflict. The desire about where he can live with good people without temporal and spatial distance, where the fair demands are accepted reasonably and where he can live in harmony with the world is melted in Seo-Gye's tears and flows together. As such, it's believed that the poetry of Seo-Gye would heal the wounds received from the external by shedding tears and allow Seo-Gye to live his life on his way.

Key Words : Park Se-dang, Joseon society, tears, poetry of Jeong(情), seven feelings(七情), purification of emotions, keep still, the daily life with no conflict, harmony.

■ 논문접수 : 2015년 3월 2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